

RaonAtti

11



6th



Sri Lanka

목 차

쪽 수

3

11월 달력

4-7

네름의 일단 해보자! 로띠 만들기

8

7기는 보아라 (7기에게 보내는 편지)

9

벽 화 완성

10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11-13

111111 (잊을 수 없는 메모리)

14-15

누워서 손바닥만한 화면으로 본 영화

16-17

아밀러의 속내

18

아름답지 아니한가

19

혼났다. 혼났다.

20

내 얘기 들어볼터?

21-22

아밀러의 11월 쏠세이



2011년 라온아띠 6기 스리랑카팀 11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피켓(타밀어)만들 허벌드링크준비 틸리니의 기우제로 하루종일 비음	허벌드링크 Wall painting 유쓰 클럽	컴포스트빈 체크 Wall painting 루완이 수도꼭지 박 살냄	피케팅-타밀어 처음 등 Wall painting 태권도 칠드런 클럽 코리안 클래스	탁구 태권도수업 무루꾸1kg 사먹음	먼슬리리포트 작성 위클리리포트 작성
7	8	9	10 POYA DAY	11 루완사고당일	12	13
아침환경정화활동 Wall painting 디고틀라클래스 커미티미팅 환경에 대해 진지한 얘기	아침환경정화활동 Wall painting Galle Road에 심을 꽃 모종가지러감 장보기 허벌드링크 준비	허벌드링크 비자연장하러 콜롬보감 유쓰 클럽	KZONE 루완 감기기운 틸리니의 감동적인 죽.	6시 10분경 루완이 빵사 러가다가 미쳐 오는 오 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등을 치여서 눈떠보니 DSI 앞이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병원을 갔을 때가 7시 5분경. 저녁에 콜롬보의 랑카 하스피 털 입원.	태권도 수업 모라투와 대학교의 로터렉트 학생들 을 만남. 루완 퇴원 병문안-루윈디, 루 윈디엄마, 모르는 엄마방문	위클리리포트 작성 병문안-갓프리 부부, 아쇼 커 부부, 와루니아카부 부, 버나드와 폴 프랜즈 (총4명)
14	15	16	17	18	19	20 EVALUATION
Wall painting 디고틀라가든 커미티미팅 틸리니 집에서 중간평가 대비 개요와 사진 고름 병문안-아마따따, 다루시 사미뜨 등	Wall painting 완성 허벌드링크 준비 장보기 강가가 집에서 PPT 만들	허벌드링크 넬름(초록)이 집에서 비 디오클럽 만들 캐롤 연습 병문안-쌍둥이엄마, 다 루시 모녀, 한스 형제 엄마, 사미뜨 양손을 무겁게 하고 옴.	아침환경정화활동 Galle Road에 꽃 19 개 심고 폴리턴 사 기 넬름(초록)이 집에서 비디오클럽 만들 병문안-신두랑기랑 아마, 니할닷따 딸 이랑 방문 냉장고 가득참.	아침환경정화활동. 집 대청소 태권도 칠드런 클럽 코리안 클래스 강가(민정)가 집에서 PPT 만들 병문안-갓프리 방문.	아침환경정화활동 태권도 사람이 없어 서 안함. Sing along! Evaluation team 도착.	촛불의식 이벨루레이션 발표 사이트 돌면서 월클락 디 스트리뷰팅 간사님과 교회 보드멤버들이 집에와서 루 완(성수)할아버지께 노래 불러드림
21	22	23	24	25	26	27
앞집에 아침 초대받음. 비공식 미팅 1대1면담 콜롬보 NCY 방문 히루니 도착!	허벌드링크 준비 커미티미팅 취소됨	루완어머니 소포 도착!! 콜라켄더 월페이팅 폴리턴 정리 위클리리포트 캐롤연습 아밀러(혁준)한국어 추 가수업 2시간 유스클럽 병문안-수데시, 니샤디, 프라가띠네마샤, 락쉬 커아이야, 칠클 에어로빅 부활.	하루종일 쉬었음.	아침환경정화활동 스몰미팅. 코이카 간담회. 성근 민주님(JTS단원) 오 심. 병문안- 빼뚝, 프라목이 와서 집 청소를 함.	짐 베드민턴 태권도 천사두명(성근,민 주) 께서 수육을! 씬장 냉장고 얼음도 사라 짐 오싼드 학예회 저녁에 말린드라 집 방문. 병문안-니할닷따, 미란이 50분 자전거 타고 방문	위클리리포트작성
28	29	30				
넬름 소포 도착! 디고틀라수업 장보기	아침환경정화활동 캐롤연습 카니발 티켓 만들 기 허벌드링크 준비 커미티 미팅	허벌드링크 지각 티켓 만들기 컴포스트빈 체크 캐롤연습 유스클럽				

네룸의 일단 해보자! 로띠 만들기

부엌 사용이 없는 2011. 12. 10. 토요일 이른 아침(7시 30분경), 나는 계속 버르고 있던 로띠 만들기를 시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신두 낭기(YMCA옆에 사는 20살에 옥꼬모 깨머 뿔루왕(모든 음식 가능)이라고 말하는 동생)를 붙잡고 로띠 레시피를 얻어왔다(근데 재료비율은 몰라—). 움하하하하하, 아래 그 로띠 만들기 과정을 소개한다.

들어간 재료



Step1.

바가지에 밀가루를 국자로 3번 퍼 넣음
 (몇 인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일단 넣어봄



Step1.5.

물컵에 매기 파우더 3TS 물30ml을 섞었으나...
 아놔...물 많다.—
 맘에 안 들어서 과감히 버리고

Step2.

매기 코코넛 가루를 국자로 바가지에 1번 넣는 것으로 체인지



Step3.

물을 5TS 넣어보고 부족한 거 같아서 5TS를 한꺼번에 넣음
 (아...이런 이번에도 물이 좀 많은 것 같다.—)
 결국 밀가루 1국자 더 넣음

Step4.

오일을 넣으면 더 쫄깃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일도 ITS 넣음

Step5.

소금 Its로 간도 맞추고~





Step6.

모든 재료를 다 넣은 후 손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찰기가 어느 정도 생기면 손으로 반죽!
대략 10~15분 정도 반죽한 듯.



Step7.

적당한 크기로 동그랴게 만들고
냉장고로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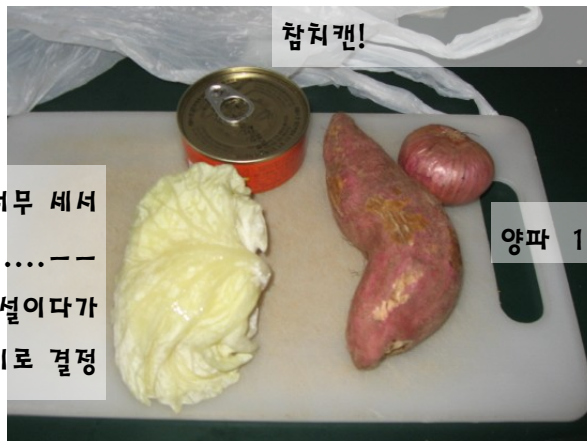


반죽을 만들고 나니 아침 8시 10분. 30분 동안 게임이나 해야
지 하고 컴퓨터를 켜는데~ ‘아?! 커리도 도전해볼까’ 해서
커리 만들기 돌입!

**이곳 저곳을 뒤져보니
나온 커리 재료들**

루완(성수)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참치캔!



냉장고 파워가 너무 세서
얼어버린 양배추.... --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넣기로 결정

양파 1개 와 고구마 1개



Step1.

양파, 고구마, 양배추를 깨끗이 손질하
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음



Step2.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구마를 볶음**
(아...고구마를 너무 크게 썰었는지...볶아서 익히기에는 너무 시간 오래 걸릴 듯하여... 물을 조금 넣고(반 컵?) 거의 삶다시피 끓였음.)



Step3.

고구마가 어느 정도 익은 후 **썰어놓은 양배추, 양파, 기름을 따라낸 참치를 넣음**

커리소스로
옐로우파우더 1ts, 고추가루 1ts,
커리파우더 1/2ts, 소금 1/3ts 를 넣음

Step4.

채소가 익을 때까지 **중간불**로 열심히 볶아줌



로띠 속으로 들어갈

베지피쉬커리 완성 -

커리를 완성하고 나니 딱 30분이 지났다!
이제 로띠를 구어 보자!



Step1.

냉장고에서 꺼낸 **로띠 반죽을 얇게 최대한 얇게** ~ 퍼준다.

이 과정이 보기보다 어려움...
계속 구멍이 나서 상당히 짜증났음
피자 집에서 알바 경력이 있는 사람은 쉽게 할

Step2.

얇게 퍼진 반죽 위에 **커리를 올리고,**
예쁘게 말아주고~



7기는 보아라

7기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7기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6기 아밀러(혁준)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지원하기 참 잘하셨어요. 스리랑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문화도, 사람도, 환경도, 자연도, 생활도, YMCA대해서도, 국제개발협력도, 자원활동도, 음식도 그리고 술까지도! 하지만 여기서 고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요. 혹시나 이러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제 선배기수들도 그래서 저희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시다. 그냥 느끼라고, 그냥 가서 살면서 배우라고.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한 지역에 연속해서 기수를 파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라온아띠 내부에서도 발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데다 발전이란 단어를 붙이니 조금 어색하네요.) 하지만 저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3개월 지나고 나서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살라는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이다 활동가다 하는 이런 거창한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일단은 사세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의식을 가질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 혼자서 생각하기 보다는 팀으로 함께 생각하세요.

더 많은 헛소리들은 나중에 만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

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스리랑카에는 길거리 개들이 이렇게나 많을까?

보신탄이 없어서 그런가? 애네는 뭘 죄로 길에서 태어나서,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먹을 것이라고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 밖에 없어서, 길에서 자고, 놀고, 먹고 할 뿐인데, 그냥 길거리 개라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눈총 받고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스리랑카는 분리수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그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산업발전과 환경보전이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걸까? 우리나라 분리수거 시스템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많은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왜 스리랑카의 월급은 이렇게 턱없이 부족할까?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가? 병원도 학교도 무료인 만큼 세금이 많아서 그런 건가? 월급이 부족해서 그 많은 스리랑카사람들이 한국어시험을 치르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5년 10년 살다 돈을 벌어 오는 건가? 최근 한국어수업에 나오기 시작한, 8년이나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영어도 잘하고, 3개월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한국어시험을 통과한 똑똑한 스리랑카 아저씨를 한국으로 가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뭘까?

1 1 1 1 1 1

- 잊을 수 없는 메모리

사고 당일 [Accident day]

2011년 11월 11일, 1이 무려 6개나 겹친 백 년에 한번 오는 소특급 빼빼로 데이! 아침 6시경 빵을 사러 가는 길에 찻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이고 말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아저씨와 근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코디인 아쇼커의 빠른 대처로 즉각 인근 공립 병원에 가서 X-Ray를 찍고, 처방을 받았다. 척추에 살짝 금이 간 정도임에도 방탄조끼 비스무리한 조끼를 입고 가만이 누워있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쉬었다. 집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등 부분에 얇은 천을 접어 끼어놓고 누웠다. 기분이 멍했다. 사고 당일임에도 소식을 들은 어머니 두 분과 여자아이가 찾아와 위로해주었다. 너무 감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지만 고맙다. 그런데 한국YMCA에 보고 후에 X-Ray는 찍었지만 정밀검사를 예보까는 얘기가 나왔다. 다친 부위가 척추이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밀검사를 받으려 엄청 좋은 사립 병원에 우리 팀 다 같이 갔다. 가서 MRI도 찍고 예상치 못한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다들 함께 있어주려 했지만, 토요일 일정과 병실 사이즈로 인해 킬리니(가 의)만 남고 다들 돌아갔다. 병실도 1인실에 화장실까지 너무 좋았다. 이런 병원에 있어도 되는 건지 아는 의문도 들었다. 프로그램이 많은 금요일에다가, 중간평가도 다음주로 다가왔는데 라는 걱정과 당장 등에서 느껴지는 아픔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생각으로 정신 없이 사고당일이 지나갔다.



사고 이후 [After Accident]

소특급 병원에서 퇴원 후 방에 있는 침대는 너무 꼰렁꼰렁해서 우리 집 거실의 선풍기 바로 밑 명당에 자리를 깔고 누웠다. 지금이야 혼자 일어날 수도 있고, 샤워도 느리지만 혼자 할 수 있지만 사고 직후에는 모든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줘야 했고, 어리도 굶을 수 없어서 샤워할 때 혼자 할 수 없어 도움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난 시점이 중간평가도 다가오는 안장 바쁜 시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집에 남아서 나를 돌봐주었다. 누워있으면서 우리 팀원들이 잘 애널까? 라는 걱정도 들고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전적으로 믿기로 마음 먹었다. 생각해보니 이곳에서 누구보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었다. 믿었던 대로 우리 팀원들은 여러 가지 준비로 고된 일의 연속임에도 나의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잘 애내주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YMCA의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주었다. 연재 Y의 대표인 버나드와 그의 친구들, 라온아띠 Committee의 멤버들, YMCA의 스템들, Youth Club 친구들, Children club 아이들과 어머니들, 앞집 주인집 내외까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누워있는 동안 심심할 틈이 없게 찾아주셨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우리나라도 병문안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과일이며 과자, 음식을 만들어다 주시기까지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누워있는 나를 위해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기도를 예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빨리 나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국에서 중간평가단이 왔을 때에도 집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통증은 가졌지만 아직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 팀원들이 평가를 잘 애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아나 간사님과 이예정 국장님을 뵈어서 너무 반가웠다. 이 반가움이 분명 나의 어리를 낮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회복에 집중한 나날들이 흐르고 흘러 3주에 되어서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다. 마지 뼈가 이미 붙었을 것 같고, 다 나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좋은(?) 소식뿐이었다. 게다가 3주나 더 집에 있어야 한다는 끔찍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조끼는 내년 2월까지 찢라고 하셨다. 잠깐 3주 더 집에 있을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팀원들을 믿고 좀 더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지금은 진통제도 아픔이 느껴질 때만 먹고, 다시 YMCA에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몸이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움직이기로 마음 먹었다. 집에 있는 동안도 가만이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열심이 활동하고 있을 다른 팀원들을 위해 가사도 조금씩 거두고 있다. 사고 난지 1개월이 넘게 흘렀다. 완쾌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젊으니 금방 나를 것이다!

감사 [Gratitude]

다치고 나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미안함과 고마움이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크다. 일단 4명의 동거인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장 크다! 어리를 굶일 수 없어 항상 사워아고 옷 입는 것까지 도와준 아밀러(역준), 짜기 빨래에다 내 빨래까지 덤으로 묵묵히 예준 강가(민정), 누워만 있기 때문에 떨어진 식욕에 항상 맛있게 건강 야채죽을 끓여줬던 툴리니(가익), 뜨거운 죽 플라스틱 그릇에 먹으면 환경오염 나온다며 스땡 그릇 사다 준 네룸(소록)까지. 언급하자면 수도 없이 많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코디 아쇼케! 항상 집에 있는 나를 배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코디로서 당연히 우리 라온아띠들을 생각했겠지만, 정신적으로 참으로 의지가 된다. 라온아띠 Committee 멤버중의 한 분이신 니알 딱따! 짜주 괜찮냐는 안부 전화와 뼈가 붙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다 주신 엄청난 양의 젤리들, 시간 날 때마다 찾아주시기 까지 그리고 기도까지.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쟁이 참 많은 네마샤, 프라가띠 어머니님. 매일같이 전화 주시고, 음식도 손수 만들어다 주시고 전화를 끊을 때면 항상 우리말로 “사랑해요” 라고 해주신다. 다리가 아프신데도 3층인 우리 집까지 짜주 와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다. 여기서 엄마 안분을 더 얻고 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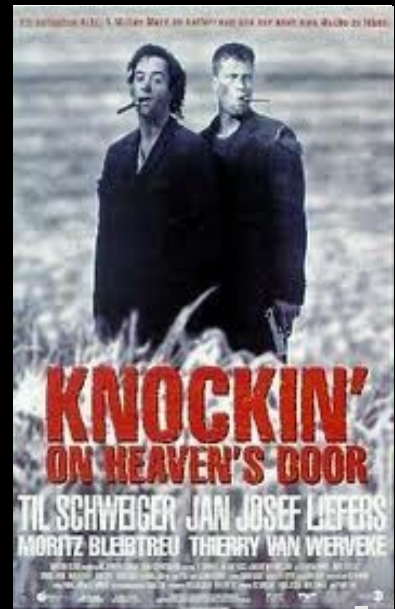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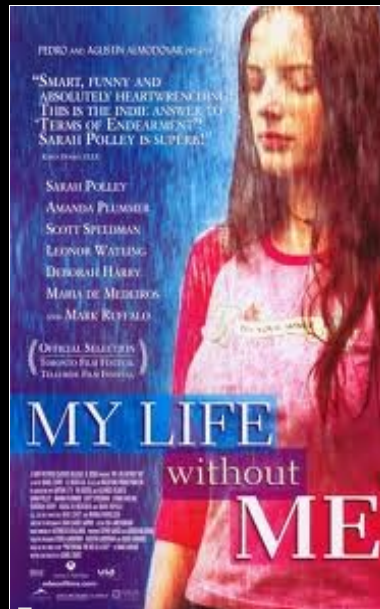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나를 걱정에주시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 스리랑카에서 평생 갇아도 갇지 못할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모두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By RUWAN(성수)

너서 손바다마하 화면으로 보 영화

사고를 당하고 나서 꿈쩍없이 누워있게 되었다. 그 때 강가(민정)가 자기 핸드폰에다가 영화를 넣어주기 시작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누워서도 볼 수 있고, 덕분에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었다. 영화는 강가가 가져온 외장형하드에 있는 지극히 개인의 취향에 맞춰진 영화들이었다. 넣어주는 대로 볼 수 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영화를 본 후 느낌을 조금씩 정리해주었는데 적다보니 죄다 죽음, 그것도 시한부인생에 관한 영화 3편이었다!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남은 시간 동안 맘껏 누리지만, 어떤 틀이나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떠나고도 남은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족을 위해 남기고 떠나는 주인공.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자신이 떠나고 자신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까지 찾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주인공은 남은 시간을 아낌없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투자하면서, 즐겁게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고..

너서 소바다마하 화면으로 보 영화

세편을 보고 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면 망나니처럼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망나니처럼
살 것 같다. 한편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인 것은 사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끝이 아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묘사 하도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 이런
저런 생각만 많아지고 있다.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이지만, 시한부 인생 선고
를 받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루하루에 솔직하고 후회 없이 임한다면 언제
라도 죽음이 닥쳤을 때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공중화장실 소변기
앞에 붙어있던 글귀 하나가 생각이 난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라는 것을.”

주의사항!

3편을 면담아서 보면 너무 죽음에 관해 심취할 수도 있고, 하며 자신을 시한부인생을
착각, 지나치게 감정이입 혹은 몰입하여 막 살게 될 수도 있음. 띄엄띄엄 3편을 보기바람.

By RUWAN(성수)

<YMCA에서 보내온 질문지에 대한 아밀러의 속내>

질문1. 현재까지의 활동을 통해 가장 관심 가지게 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간사(코디네이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간관계와 개인적 역량을 십분 발휘해 이어나 간사님, 코디네이터 아쇼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청년 임파워먼트에 힘쓰고, 한 사람에게라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질문2. 남은 기간 동안 탐구하거나 실천해 보고 싶거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팀으로서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드멤버들과 더욱 친해지기, 아쇼커 등 현지 스텝들과 더욱 친해지기, 이곳에 있는 NGO 기관 방문해 보기, 정규프로그램에 지속하기,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에서 의미 찾기, 지속가능성을 생각하고 라온아띠 없이 현지에서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생각해 보기 등.

질문3. 팀 원과의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솔직하며, 이 팀 원들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나요?

솔직하다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말 자신이 알고 있고,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나 후련하자고 솔직해지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것이 정말 솔직한 것의 정의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일까요?

저는 솔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나 편하자고 하는 솔직한 행동은 싫습니다. 저의 솔직함으로 타인의 변화나 영향은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솔직함으로 타인과 나 사이의 이해와 포용력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될까. 팀원들은 제게 있어선 단순한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족도 아닙니다. 하지만 동료이고, 동반자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넘치면 사양하고 부족하면 슬플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기대도 커지고 실망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냥 특별한 기대도 실망도 없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계속 남으면 좋겠습니다.

<YMCA에서 보내온 질문지에 대한 아밀러의 속내>

질문4. 라온아띠 활동을 통해서 찾은 나의 달란트 즉, 나의 재능을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 드렸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세상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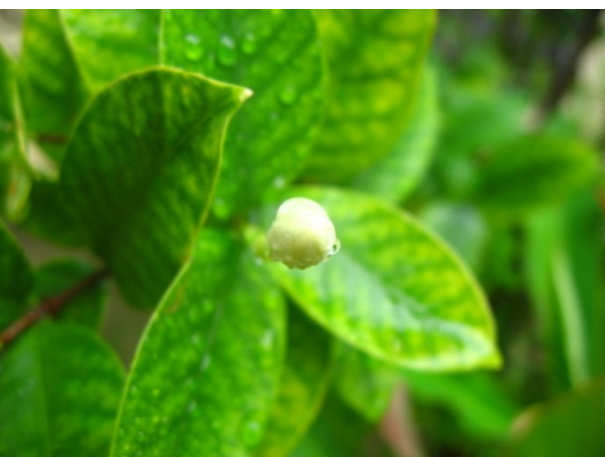
내 맘속에 진작이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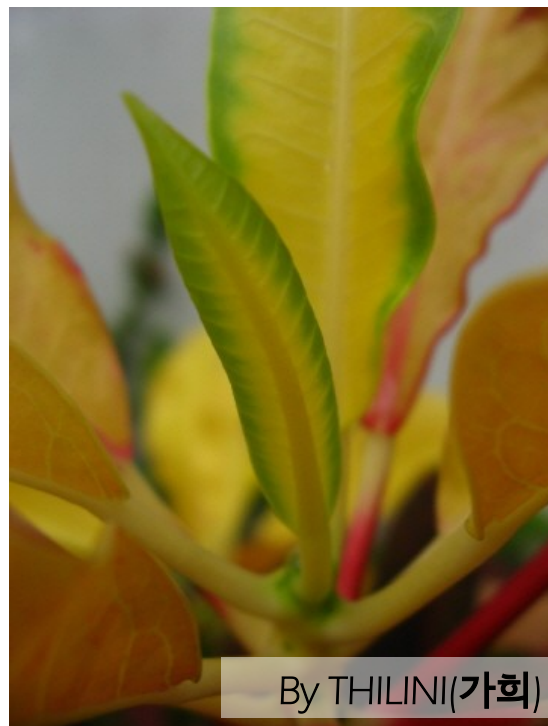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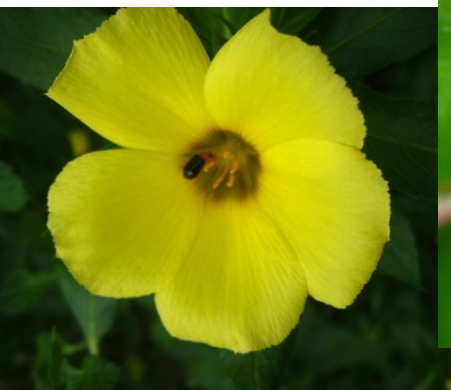
질문5. 라온아띠 단원으로서, 지금의 나는 행복한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주변 사람들(팀원, 호스트기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4명의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호스트 기관 사람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하고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잘한 것 보다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호스트기관 사람들 보다는 마을 사람들하고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호스트 사람들은 자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에 대한 저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로 충분히 족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을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한 사람의 행복여부를 제가 보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저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전부터 이미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로부터가 아닌 그들 스스로부터 이미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서 그들이 행복하다, 내가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등의 생각은 하고 싶지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열정을 담아 소통을 하려 노력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크
다
지
아
니
항
가



By THILINI(가희)

혼 났다.



벽화를 그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또 다른 벽이 보였다.

혼자서 공리를 하다가 조용히, 노랑색 페인트를 가져다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그리고 혼 났다.

혼 났다.

혼(魂)났다.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라 일컫는 정신은 놓았었다.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실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환을 애초에 없애고 싶었다. 그림 답답할 것도 마음 상할 일도 없을 테니까. 혼을 놓고 보니 마음 상할 일은 없는데 무얼 해도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흐리멍텅한 멍추가 되었다. 전략변경, 우선 실행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짜고 짜 벽에 그림을 그렸다.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자마자 혼이 났다.

내가 혼 나야만 했던 죄목은,

내가 그린 그림이 YMCA의 격조를 떨어뜨린다는 것. 그렇군.

다음날 하얀 페인트가 내 그림을 덮었다.

하얀 페인트를 뚫고 노르스름하게 투라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아름답지 아니하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냥, 혼을 들었나 났다 하며 살기로 했다.



By THILINI(가희)

내 이야기 들어볼 러?

나의 11월은 3분기로 나뉘진다. 르완(김성수)이 사고 나기 전, 사고 난 후부터 중간평가 까지 그리고 중간평가 후. 1분기에 나는 별 생각이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2분기에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정신을 바짝 붙잡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사고, 중간평가 준비, 중간평가를 겨냥해 벌려놓은 일들, 인력부족, 더 무겁게 느껴 지던 날씨까지. 그러나 지금 돌아보건데 그때가 3분기 중 가장 즐겁고 알찼다. 팀원들은 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았다. 더욱 빛을 냈다. 최고 령 팀이라서 인지 묵은 내공이 빛을 발하는 나날들이었다. 마음 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예쁘던지. 아픈 사람은 아픈 와중에도 다른 팀원들을 생각하고, 다른 팀원들은 아픈 사람이 걱정 없이 회복에만 힘쓸 수 있도록 힘든 내색 없이 평소 처럼, 유난스럽지도 무심하지도 않게 살았다. 그런 미묘하면서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일들이 체계적으로, 착착 진행됐다. 격변 속에 2분기가 정신 없이 지나갔다.

대당원의 3분기, 의욕이 최고 점을 찍고, 곧바로 곤두박질쳐서 땅을 짚는 대혼란을 겪었다. 중간평가. 평가. 새롭게 주어질 과제, 살아온 날들에 대한 깨우침,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계획. 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기대, 풀어지는 긴장과 함께 항꺼번에 밀려온 피로, 지친 심신을 충전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여전한 현실 속에서 무너져버린 기대, 부풀었던 마음은 지친 심신에 의해 슬금슬금 김이 빠지다 결국 평터져버리고 말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내 회의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건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중간평가가 지나간 자리, 후풍이 대 당했다. 팀 전체가 살짝 쿵 흔들렸을 정도니까. 격변, 혼돈의 11월을 보낸 지금, 나는 여전히 조금씩 흔들리며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꽃을 샀다,

남은 나날 함께 자라나고, 이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며.

By THILINI(가희)



어느덧 살다 보니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달 말이면 귀국이네요.

9월은 그랬습니다. 정신 없었죠. 왜 이렇게 할 것은 많은지.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하랴, 준비하랴, 싱할라어 공부하랴, 현지 생활에 적응하랴, 사람들 알아가랴, 정말 더디게만 가는 9월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다간 언제 집 가나 싶었죠. 불평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10월은 조금씩 모든 것을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기 시작했고, 타인을 보기 시작했으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살고 적응하기에 벅찬 한달이었거든요. 저희들끼리 50일 파티도 하며 어느새 이곳에 온지도 꽤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월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 차. 보낸 시간이 더 많아지고 남은 시간이 더 적어지는 기로에 있는 달이었습니다. 군대 용어로는 꺾인다고 하죠. 그리고 중간평가가 있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앞두고 저희는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중간평가단이 오기 전까지 이것저것 보여 주기식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 했기 때문이죠. 벽화 그리기도 완성하랴, 꽃도 심으랴, 청소하랴, 울타리 만들랴, 페인트칠 하랴, 퇴비 통(Compost bin) 분배한 지역도 조사하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중간평가단 가고 나서 제게 준건 혼란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뒤흔들고 갔습니다. 중간평가단이 왔다 간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 지속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라온아띠가 없어도 현지인들과 지역의 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에 다 태클을 걸 수 밖에 없었고,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물은 왜 주는지, 피켓은 왜 운전자들을 향해 들고 있는지, 디고롤라(Digarolla)에서는 왜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지, 유스 클럽(Youth Club)과 칠드런스 클럽(Children's Club)은 왜 모이는 건지, 허벌 드링크(Herbal Drink) 컵은 왜 씻어 줘야 하는지, 태권도 수업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벽시계는 왜 나눠줘야 하는지, 한국어 수업은 왜 계속해야 하는지, 코디네이터는 왜 프로그램 기획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지,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왜 라온아띠는 결정권한이 없고 수직적 실행권한만 있는지, 보드 멤버와 코디네이터의 관계는 왜 저렇게 서로를 깎아 내리려고 하는지, 왜 커밋티 미팅(Committee meeting)에서 돈 이야기가 주로 오고 가는지, 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값과 이동을 통제하면서 까지 돈에 대해 민감해 하는지, 우리는 정말 KB 머니를 들고 온 5명의 KB머니 전달 수단에 불과한 건지, 이런 저런 생각에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중간평가단이 왔다 간 이후로 오혁준 버리기는 실패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상념과 잡념을 버리고, 현지에 동화되고, 현지인처럼 살며,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단순하게 살려고 했던 제 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시작해, 이러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머리 아픈 길을 택했습니다.

4개월 차, 한달 반정도 남은 지금,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선택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9월 10월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1차원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성과 의미를 찾아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라온아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YMCA 자원봉사자와, 라온아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일 공동체로 파견되는 캄보디아 팀 같은 경우에는 다일 공동체 자원봉사자와, 라온아띠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꼭 차이가 필요하지, 라온아띠가 뭔데, 라온아띠가 뭐길래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지,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거 아냐.

하지만 제가 만약 라온아띠가 아닌 YMCA 자원봉사자로 왔다면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속가능성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과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며, 5명으로 팀으로 함께 고민하는 운동성을 띤 이러한 5개월을 라온아띠가 아닌 단순히 YMCA 자원봉사자였다면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귀머거리 3년, 병어리 3년, 장님 3년 바보로 돌아가 살지, 아니면 활동과 상황과 관계와 스스로에게 까지 태클을 걸어가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내려고 에세이를 적어 내려간 건 아니니깐요. 12월 동안 좀더 고민하여 다음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저의 결정을 적어보려 합니다.

그럼 다음달 보고서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



- THE END -

